# 「거문고」 _ 김영랑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김영랑, 「거문고」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거문고(기린)'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자유가 억압당한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제 곡조를 잃어버린 기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리떼', '잔나비떼'로 상징되는 일제와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현실에서 숨죽여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을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 1연: 해가 스무 번 바뀌었음에도 울지 못하는 거문고
- 2연: 다시 울 날을 소망하는 거문고
- 3연: 일제 강점하의 부정적 현실
- 4연: 해가 또 바뀌어도 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거문고

**✓ 주제 : 암담한 시대 상황에 대한 비극적 인식**

①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② 사물('기린')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③ '기린(나/거문고)'과 이를 위협하는 존재인 '이리떼','잔나비떼'의 대조가 드러나고 있다.

④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1연의 '벽에 기대선 채'는 4연에서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로 구체화되어 외부 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⑥ 1연의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는 4연에서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로 연결되어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⑦ 1연에서 '기린'이 '울지를 못'하는 것과 4연에서 '기린'이 '울들 못'하는 것은 화자가 처한 억압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화자로 하여금 슬픔과 비애의 감정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⑧ 1연의 '영영'은 부정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암담함을, 4연의 '맘 놓고'는 억압의 강도가 심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⑨ 이 작품은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193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일제 강점 아래에서 민족 해방의 희망을 불러일으킨 삼일 운동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폭압을 휘두르는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이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

⑩ 거문고의 울림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기린(거문고)의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은 우리 민족이 해방되리라는 희망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3·1 운동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⑪ '거친 들 이리떼'와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는 모두 기린을 위협하는 존재이므로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 T H E - 깊 은 독 해 ]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은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대상은 기린이다. '검은 벽'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기린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조금 더 수능적으로 독해해보자면, 뒤에 '울지를 못한다'라는 시구를 통해 현재 상황이 부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으로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 '검은 벽'이 부정적 현실 상황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 20년 동안 벽에 기대선 채로 시간만 보내는 암울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암울한 현실이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것이다.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 화자가 제시되어 있다. '내 기린'은 아마 제목인 거문고를 가리킬 것이다. 화자의 거문고가 20년 동안 연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때 '기린'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린이 아니라,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기린'은 거문고를 뜻함과 동시에, 화자와 동일시된다. 즉, <20년 동안 연주되지 못한 거문고 = 성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울지 못하는 기린 = 오랫동안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 화자>인 것이다. 따라서 '거문고'는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영영 울지 못한다'는 표현 또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답답함과 비애감을 표현한 것이다. ('기린'은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

▶1연 : 20년 동안 울지 못한 거문고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 여기서 '그'는 거문고를 가리킬 것이고,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갔다고 했으므로, 아마 '그 가슴'은 거문고 현(줄)을 비유한 말일 것이다. 의인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이때 '노인'은 과거에 거문고를 연주한 존재, 즉 과거에 기린이 울 수 있게 한 존재로, 성인을 가리키며, 화자의 소망의 대상이다. '퉁'이라는 음성 상징어 또한 사용되어 있다.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 (과거에 거문고를 연주한 노인은) 지금 어떤 특별한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 땅 위의 외로운 기린쯤이야 (노인의 마음속에서) 벌써 잊혀졌을까, 라는 뜻으로, 노인이 벌써 기린을 잊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때 '외론 기린'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2연 : 다시 울 날을 소망하는 외로운 거문고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 집 밖의 거친 들에는 이리떼가 몰려다니는 상황이다. 이때 '이리떼', '거친 들' 등은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일제 강점의 억압적 상황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 원숭이떼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마구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잔나비떼들' 또한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내 기린은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지다

→ 기린은 성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외부 현실을 보면 도저히 성인이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맘 둘 곳'이 없어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음을, '몸둘 곳'이 없어진다는 것은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을 나타낸다.

▶3연 : 마음 둘 곳이 없는 현실 상황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 (문 밖의 상황이 기대할 것이 없으므로) 기린은 문을 굳게 닫고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상황이다. '문 아주 굳이 닫고'라는 표현에서 억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단절 의지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 스물 한 번째 해가 되어 가고 있다.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20년 동안 이어져 온 기린(화자)의 답답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이 밤'은 암울한 현실을 뜻한다.

▶4연 : 해가 또 바뀌어도 울지 못하는 거문고

**#김영랑 시에 등장하는 '거문고'의 의미**

김영랑은 자신의 작품에서 우리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우리의 전통 악기인 거문고나 가야금을 소재로 하여 형상화하였다.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부친의 반대에 가로막혀 그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시인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 악기인 거문고와 가야금을 자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을 빗댄 사물로 활용한 것이다.

**#김영랑의 현실 참여적인 색다른 면모**

김영랑이 순수 서정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제 그는 창씨개명과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절필 선언을 했으며, 해방 후에 민족 운동에 참여하는 등 현실 참여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의 후기 시에는 이러한 참여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 <거문고>, <독을 차고>, <묘비명> 등을 대표로 하는 후기 시는 우리 민족이 처한 식민지라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절망과 회의를 노래한다.

**[ 수능적 독해 Point ]**

- 화자 :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음
- 상황 : 암울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
- 정서·태도 : 암울함, 답답함, 비애감, 망국의 비애, 의지적

## [ 연 관 - 기 출 문 제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을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B]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찍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敎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C]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 정지용, 「발열(發熱)」-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지다

[D]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김영랑, 「거문고」-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숯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평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숯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E]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 최승호, 「대설주의보」-

**1.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2.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유의 사항 | •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br>•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
| [A] |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br>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
| [B] |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br>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br>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
| [C] |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br>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3.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 선생님** :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대설주의보」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솔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4.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 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 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김영랑, 「거문고」-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나)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꼿꼿이 서 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둥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댓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막까치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오**른다.

- 고재종, 「세한도」-

**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 (나)는 모두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② (가), (나)는 모두 명령형의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③ (가), (나)는 모두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대응시켜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환기하는 시어를 사용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현재형 시제를 주로 사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영랑의 「거문고」는 193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거문고를 상상 속 동물인 기린에 비유하여 자유를 억압당했던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심정과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거문고는 화자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①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는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과 연결되어 암울한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② '영영 울지를 못한다'와 '맘 놓고 울들 못한다'를 통해 화자의 답답한 심정과 비애를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③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를 통해 화자에게 닥친 시련이 화자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④ '이리 떼만 몰려다니고'와 '잔나비 떼들 쏘다다니어'를 통해 부정적 현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⑤ '내 기린은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지다'는 자유가 억압되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 없는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7. (나)는 <보기>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쓴 시이다. (나)와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김정희, 「세한도」

「세한도」는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귀양살이할 때,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 오며 자신을 잊지 않고 귀한 책들을 구해 보내 준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 준 그림이다. 한겨울의 극한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토담집을 중심으로 왼쪽에 잣나무 두 그루, 오른 쪽에 잣나무 한 그루와 소나무 한 그루가 의연하게 서 있다. 특히 굽어 있는 소나무는 모진 세파를 견딘 드높은 의지와 절개를 표상한다. 그림에는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라고 쓰여 있는데,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름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① 시에서 날로 퇴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함축하고 있는 '마을 회관'은 그림 속 '토담집'을 변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② 시에서 현실에 굴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청솔 한 그루'의 모습은 그림 속 '소나무'의 의연한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시에서 '청솔'이 풀어내는 '푸른 숨결'의 현실 극복 의지는 그림 속 '소나무'가 표상하고 있는 의지와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시에서 농촌의 궁벽한 현실을 부각해 주고 있는 '까막까치 얼어 죽는'은 그림 속 '한겨울의 극한 추위'와 그 의미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⑤ 시에서 '동녘'에서 '타오'르는 '꼭두서니빛'은 부정적 현실의 심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림에 쓰여 있는 '歲寒然後(세한 연후)'와 대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 AII-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

1.

**[ 정답 SCAN ] ⑤**

⑤ (가)에는 화자의 어린 아들이 열에 앓고 있는 모습이, (나)에는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기린(거문고)'가 울지 못하는 상황이, (다)에는 눈보라 속에서 '굴뚝새'가 처한 상황이 부각되어 시적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 오답 SCAN ]**

① (가)에서 '나는 중얼거리다'의 문장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느껴지고 있지만, 시행이 반복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에서도 시행의 반복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명사로 끝난 시행은 11행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복이 시적 여운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다)에서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며 화자가 인식하는 암담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에는 거문고가 기린으로 의인화되었다. 또한 (다)에는 눈보라가 힘찬 군단으로 표현되어 마치 군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의인화의 표현이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에서의 표현은 계엄령 하의 군대를 연상시키기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온다.

④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은 (가)이다. (가)에서 2행은 '포도순이 소리 없이 기어 나가는 밤'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소리 없이'를 행의 맨 뒤로 보냈으며, 4행은 '등에 훈훈히 서리나니'로 표현되어야 자연스러운데 '훈훈히'를 행의 뒤로 보냈고, 6행에서는 '박나비처럼 드내쉬노니'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도치하여 표현했다. 또한 8행과 9행 역시 도치되어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어순의 도치는 작품 전반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2.

**[ 정답 SCAN ] ⑤**

⑤ (가)에서 화자의 아이는 열병을 앓고 있다. 화자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안타깝게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이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으로 표현되었으며,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망연한 표정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C]의 장면을 ㅂ, ㅅ처럼 영상화하는 것이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① [A] 장면에서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처마 밑 어느 집에 고정되고 있다. 시간은 밤이요, 땅에 스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린다는 표현에서 더운 계절임을 알 수 있다.

② 아이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기에 '박나비, 주사'의 표현에서 열병의 붉은 색이 두드러지고, 아이의 가쁜 호흡을 음향으로 들려주면 아이의 고통스런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아이의 앓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아아'의 감탄사는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 정답 SCAN ] ④

④ <보기>는 (나)의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시대적 상황 하에 탄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두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일정한 준거로서의 틀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 '노인'은 국권이 자유로울 때 '기린'을 마음껏 울게 했던 존재로 추억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의 '기린'은 이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보다 계엄령으로 표현된 눈보라 속에서 고립된 존재라 할 수 있다.

[ 오답 SCAN ]

① <보기>에서 (나)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에 쓰였다고 했다. (다) 역시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 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② (나)에서 화자는 마음껏 울지 못하는 시대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 지금은 '이리떼, 잔나비떼'만 몰려다니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읽어낼 수 없다. (다)는 눈보라의 상황 속에서 파닥이며 힘겹게 날아가는 '굴뚝새'에게서 암울한 시대 상황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읽어낼 수 있으나 '굴뚝새'는 '뒷간'에 몸을 감추고 만다. 그렇기에 여기에서도 고난의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읽어낼 수 없다. '대설주의보, 군단, 계엄령'으로 표현된 암울한 상황만이 강조되고 있다.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기린'이지만, 동시에 화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다)에서 '내리는' 역시 그 대상은 '눈'이면서 동시에 '계엄령' 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이리떼'와 '잔나비떼'는 '내 기린'을 제약하는 것이며, (다)에서 '솔개'는 '굴뚝새'를 '뒷간'에 숨게 만든다.

4.

[ 정답 SCAN ] ⑤

⑤ [D]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문 아주 닫고 벽에 기댄 채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기린'의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닫힌 공간은 바로 화자 스스로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는 '산짐승'들로 하여금 길 잃고 굶주리게 하며,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려는 눈보라가 내려치는 상황이다. '굴뚝새'마저 몸을 감추게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립의 공간인 것이다.

[ 오답 SCAN ]

① [D]는 화자가 선택한 고립된 공간이며, 동시에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E]의 공간은 존재들을 억압하는 외부적 공간이다.

② [D]와 [E]의 상황 모두 화자를 힘들게 하고,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③ [D]에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내'는 '기린'이라는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E]에서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관찰과 묘사만 드러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대상인 '기린'과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E]에서 화자는 대상인 '눈보라'와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5.

[ 정답 SCAN ] ①

① (가)에서는 '기린', 즉 '거문고'에 스스로 울 수 있는 존재라는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노엽게 운다'와 같이 '청솔'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오답 SCAN ]

② (나)는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와 같이 명령형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이처럼 명령형의 어조를 사용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③ (가)는 1연과 4연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가)처럼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대응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운다'와 같이 청각적 심상을 환기하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의 경우 '울지를 못한다'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울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가)가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환기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는 '못한다', '없어지다' 등과 같이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도 '서 있다', '감는다', '운다', '타오른다'와 같이 현재형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6.

**[ 정답 SCAN ] ③**

③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는 '기린'이 잊혀지지 않았을 것임을 말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기린'이 잊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언젠가 울 수 있을 것이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는 '기린'이 울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버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를 화자에게 닥친 시련이 화자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① '해가 스무 번 바뀌었'고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기린이 '맘 놓고 울들 못한다'라는 것은 암울한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② '영영 울지를 못한다'와 '맘 놓고 울들 못한다'라는 것은 기린이 울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러한 토로에서 암울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답답한 심정과 비애를 느낄 수 있다.

④ '이리 떼'와 '잔나비 떼들'은 부정적 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이 '몰려다니고', '쏘다다니'는 현실은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

⑤ '내 기린은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지다'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뜻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7.

**[ 정답 SCAN ] ⑤**

⑤ 시에서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오른다'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희망이 움터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꼭두서니빛'이 타오른다는 것이 부정적 현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타오'르는 '꼭두서니빛'이 그림에 쓰인 '세한연후'와 대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① '마을 회관'은 그림 속 '토담집'에 대응하는데, 시에서 날로 퇴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마을 회관'이 그림 속 '토담집'을 변용한 것임을 나타낸다.

② 시에서 '청솔 한 그루 꼿꼿이 서 있다'는 '청솔'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그림 속 '소나무'의 의연한 이미지가 시에 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시에서 '푸른 숨결'은 '청솔'의 생명력과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 준다. 이러한 의지는 그림 속 '소나무'가 표상하고 있는 의지와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까막까치 얼어 죽는'은 추위가 극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극심한 추위는 모진 세파와 의미가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그림 속 '한겨울의 극한 추위'도 모진 세파와 의미가 연결된다.